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 고등학생이 지각한 결혼·가족관과 가족형성자신감 그리고 근원가족 건강성과 부모 요구도를 중심으로

황 현 주<sup>1)</sup>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로서, 고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요구도 조사를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이 느끼는 전반적인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과 근원가족 건강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아울러 건강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요구도를 살펴해보았다.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학교 3곳(인문계) 1, 2, 3학년생 334명과 학부모 23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는 t-검증, 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중다비교, 회귀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생들은 가족을 비교적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만, 상대적으로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에는 소극적이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앞으로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가족형성자신감은 상당히 낮았다. 근원가족 건강성점수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이는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에 1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 프로그램에 대해 대부분의 부모들(91.1%)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주요어 : 청소년 건강가족프로그램, 고등학생의 결혼·가족관, 이혼관, 가족형성자신감, 근원가족 건강성, 부모 요구도

## I. 서 론

지난 세기 동안 인류가 성취한 과학기술과 경제, 문화적인 성장은 근년에 이르러 개인과 가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관심과는 별도로,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개인과 가족 삶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IMF 이후 한국의 이혼율은 급격히 증가해 결혼대비 이혼율이 47.4%(2002년도 기준)를 차지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더니,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835쌍이 결혼하고 458쌍이 이혼함으로써, 결혼대비 이혼율이 50%(2003년도 기준)를 넘어섰다.

결혼대비 이혼율 50%라는 통계수치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가족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 비록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건강가족법이 입법화되었으며, 여러 대학에서도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강좌들이 개설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통계청에서 사용한 이혼율 산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이혼율 계산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정현숙, 2004; 한성현, 최민자, 이진석, 2000).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인지, 아니면 10%인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들 수치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혼증가율은 2000년 1.7%, 2001년 12.5%, 그리고 2002년에는 7.6%로 잠시 내려왔다가 2003년 15%를 기록함으로써, 조만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을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학교에서도 이혼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것은 바로 청소년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청소년

들로 하여금 결혼을 기피하고 대신 동거와 같은 삶의 양식을 선호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결혼율의 저하와 함께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2002년도 기준)으로 성인남녀가 만나 간신히 1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결혼에 대한 불안감으로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풍조가 점차 보편화 되어지고 있다(매일신문 2004. 7. 12). 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결혼하였을 때,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대신 이혼으로 인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가족기능의 약화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약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04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출산장려와 결혼 지원, 이혼 예방이 가장 큰 축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정관·난관복원수술의 의료보험혜택, 다자녀 분만의 국가 보조 등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족 문제는 이러한 평면적인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가족에 대한 연구는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우리는 건강한 청소년 보다는 문제 청소년의 원인과 문제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으며, 건강한 가족의 모습 보다는 부모의 이혼과 별거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임, 학대와 같이 문제가정과 가족으로 인한 병리적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물론 이러한 연구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는 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을 통한 가족 본연

의 가치와 모델에 대한 정보가 함께 필요하다. 또한 가족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을 단지 양적으로, 표면적으로 전달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 각자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자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즉 앞으로 가정을 형성할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의 가치관 형성과 이러한 준비를 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도움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족 연구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 즉 가족의 건강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너무나 미약하다.

건강가족에 대한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Otto(1962)는 건강한 가족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행하면서 모든 가족이 잠재된 강점과 능력, 즉 건강가족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Stinnett과 Defrain(1985)은 미국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신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22,000여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 가족의 공통점을 살펴본 결과, 감사(appreciation), 효과적인 의사소통, 헌신(commitment), 강력한 가치체계, 함께 있는 시간을 즐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같은 6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최근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의 특징을 살펴본 Gottman(1994)과 그리고 Mackey와 O'Brien(1995)의 연구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김용미, 서선희, 옥경희, 정혜정, 2002, 재인용). 또한 최근의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단지 건강가족의 특성을 탐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변인을 모색하여 건강한 가족의 모델을 제시하고 가족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 또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처럼 서구에서는 Otto(1962)의 연구를 시작으로 60년대부터 건강가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건강가족에

대한 개념이 인식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90년대 초반 유영주(1991)가 우리나라 주부들을 대상으로 건강가족의 특성을 살펴본 것을 필두로, 이후 몇몇 연구자들이 관련학회나 세미나에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연구(어은주, 유영주, 1995; 지영숙, 이영호, 1998; 최희진, 유영주, 1999)와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어은주, 유영주, 1997), 그리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 교육 프로그램(김혜석, 1990; 유영주, 이정연, 오윤자, 1998; 정민자, 1996)과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오윤자, 1994; 정현숙, 1997; 최혜경, 노치영, 박의순, 1994), 부부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이창숙, 1998),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신혜영, 1997)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이후부터 가족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들이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강가족 연구와 가족의 건강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주부, 부부, 예비 부부와 같이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형성하였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성인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는 당사자인 부부 못지않게 자녀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는 일반 가정의 자녀 보다 정신건강이 나쁘고(주소희, 1991),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숙, 1993). 또한 부모의 이혼에 분노, 불안, 우울, 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겪게 된다. 심지어 이들은 가족구조를 왜곡하여 지각하는 고정 관념적 사고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Chase-Lansdale, Cherlin, & Kiernan, 1995; Fernandez, 1997; Hetherington, Bridges,

& Insabella, 1998).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근원가족이 이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Benson과 동료들의 연구(1993)에 의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융합과 통제에 어려움을 지각하고 있는 자녀들은 이성친구가 자신을 거부하거나 떠날 것에 대한 높은 불안감과 함께 이성과의 의사소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급증하는 이혼과 흔들리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올바른 건강가족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능력, 위치, 역할에 대한 지각과 개념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기 상, 즉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정체성과 가치관은 이후의 발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까지 실시되고 있는 건강가족 프로그램은 주로 결혼한 부부나 결혼을 약속한 성인남녀에 한정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다(고선주, 이현아, 이기영, 최진아, 유우영, 2003; 이영호, 최보아, 서미란, 지영숙, 2004; 정현숙, 2004; 홍달아기, 신현실, 2001). 그나마 최근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강좌들이 생겨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가족관계, 이성교제, 배우자선택과 결혼, 결혼생활 계획하기, 올바른 성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족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에 있다. 다만 중·고등학교 교과목 중 기술·가정과목을 통해 가족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기술·가정과목의 경우 기술과 가정과목의 통합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모두 교과서 내용의 1/4만이 “나와 가족의 이해”(중학교)와 “가정생활의 설계”(고등학교)라는 단원의 제목 하에 가족과 연관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가정·기술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가족생활주기, 결혼과 육아 등의 내용으로 극히 부분적인 정보전달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가정·기술 과목의 짧은 수업시수로 인하여 피상적인 내용밖에 다루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는 목적 하에, 일차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대상인 청소년과 그리고 부모의 체계적인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를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인 동시에, 지금까지 청소년의 역할 모델로서 뿐만 아니라 미래 성인과 부모로서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필요에 의한 욕구 파악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느끼는 전반적인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그리고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은 어떠하며,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근원가족과의 관계는 생식가족의 부부관계와 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남순현, 2001; 유은희, 박성연, 1989; 전춘애, 박성연, 1994; Fine, 1988; Kerr & Bowen, 1988)를 토대로, 청소년이 지각한 근원가족의 건강성이 청소년의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그리고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그리고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

은 어떠한가?

- 1-1. 청소년이 지각한 결혼·가족관은 어떠한가?
- 1-2. 청소년이 지각한 이혼관은 어떠한가?
- 1-3.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그리고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1. 청소년이 지각한 결혼·가족관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2. 청소년이 지각한 이혼관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3.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이 지각한 근원가족의 건강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이 지각한 근원가족의 건강성과 결혼·가족관, 이혼관 그리고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과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청소년의 건강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필요성과 욕구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연구대상

청소년의 건강가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집단을 편의표집 하였다. 그리고 발달 시기에

있어 청소년기의 광범위한 특성을 고려하고, 아울러 청소년기 내에서의 발달적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고등학생과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 3곳(인문계)을 편의표집 하여, 고등학교 1-3학년과 부모를 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고등학생과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먼저 고등학생은 1학년이 26.8%, 2학년이 32.6%, 3학년이 30.5%를 차지하였다. 부모는 40세 미만이 5.5%, 50세 이상이 4.2%였으며, 나머지 90%의 부모들이 40~50세에 속해 있었다. 종교는 고등학생과 부모 모두 무교가 44.9%, 4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가 각각 29.9%, 29.1%를 차지하였다.

###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먼저 고등학생과 부모용 질문지, 그리고 가족의 건강성 검사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 고등학생과 부모용 질문지

본 질문지는 김영옥(1999)과 김성희(2003)가 사용한 질문지와 정옥분·황현주·엄세진(2004)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고등학생 질문지 내용으로는 청소년이 느끼는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그리고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결혼·가족관」은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결혼과 가족의 필요성과 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해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할 인생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징

| 고등학생 (N=334)    |         |           | 학부모 (N=237)  |              |           |
|-----------------|---------|-----------|--------------|--------------|-----------|
| 변 인             | 내 용     | 빈도(%)     | 변 인          | 내 용          | 빈도(%)     |
| 고등학생의<br>성 별    | 남       | 108(32.3) | 부 모          | 부            | 40(16.9)  |
|                 | 여       | 226(67.7) |              | 모            | 193(81.4) |
| 학 년             | 1학년     | 123(36.8) | 최종학교         | 중졸 이하        | 9(3.8)    |
|                 | 2학년     | 109(32.6) |              | 고-고졸         | 132(55.7) |
|                 | 3학년     | 102(30.5) |              | 대-대졸         | 91(38.4)  |
|                 |         |           |              | 대학원 이상       | 5(2.1)    |
| 학교성적            | 상       | 98(29.3)  | 연 령          | 30~40세 미만    | 13(5.5)   |
|                 | 중       | 190(56.9) |              | 40~50세 미만    | 214(90.3) |
|                 | 하       | 46(13.8)  |              | 50세 이상       | 10(4.2)   |
| 가정의 주관적<br>경제수준 | 상       | 19(5.7)   | 월 평균<br>가계소득 | 100만원 미만     | 23(9.6)   |
|                 | 중       | 301(90.1) |              | 100~200만원 미만 | 73(30.8)  |
|                 | 하       | 14(4.2)   |              | 200~300만원 미만 | 47(19.8)  |
|                 |         |           |              | 300~400만원 미만 | 34(14.3)  |
|                 |         |           |              | 500만원 이상     | 60(25.3)  |
| 종 교             | 기독교     | 100(29.9) | 부모 종교        | 기독교          | 69(29.1)  |
|                 | 천주교     | 53(15.9)  |              | 천주교          | 34(14.3)  |
|                 | 불교      | 31(9.3)   |              | 불교           | 36(15.2)  |
|                 | 무교      | 150(44.9) |              | 무교           | 95(40.1)  |
| 아버지 직업          | 자영업     | 3(0.9)    | 부<br>직 업     | 자영업          | 77(32.5)  |
|                 | 판매/서비스직 | 95(28.4)  |              | 판매/서비스직      | 19(8.1)   |
|                 | 기능/숙련공직 | 15(4.5)   |              | 기능/숙련공직      | 61(25.7)  |
|                 | 사무/기술직  | 39(11.7)  |              | 사무/기술직       | 23(9.7)   |
|                 | 경영/관리직  | 105(31.4) |              | 경영/관리직       | 8(3.4)    |
|                 | 전문/자유직  | 45(13.5)  |              | 전문/자유직       | 41(11.3)  |
|                 | 무 직     | 14(4.2)   |              | 무응답          | 8(3.4)    |
|                 | 무응답     | 18(5.4)   |              |              |           |
|                 |         |           |              |              |           |
|                 |         |           | 결혼상태         | 함께 거주        | 224(94.5) |
|                 |         |           |              | 주말부부         | 6(2.5)    |
|                 |         |           |              | 별거           | 4(1.7)    |
|                 |         |           |              | 이혼           | 2(0.8)    |

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가족을 다른 가치들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반면에 「이혼관」은 이혼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가치관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이란 청소년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 결혼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그리고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진술 방향이 반대로 표현된 문항의 점수는 역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부모 질문지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들, 그리고 청소년 건강가족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싶은 교육내용들이 들어있다.

### 가족의 건강성

가족의 건강성은 한국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 척도들이 공통적으로 밝힌 요인들과 한국의 가족학 전문가들이 추출한 요인을 모아 구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어은주와 유영주(1995)의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건강한 가족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본 가족의 건강성 척도는 가족원 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6문항), 그리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 등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5점)”에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어은주와 유영주(1995)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성 척도는 고등학생 질문지와 함께 배부하였다.

###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고등학생과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5월 20일과 22일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4년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다.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고등학생과 부모에 각기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학생은 350부, 부모는 241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불성실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학생은 334부, 부모는 237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작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척도의 문항들에 대한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분산분석, 그리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분석 방법들 중 집단 간의 사례수가 달라도 사용이 가능하며, 여러 사후중다비교법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Scheffe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근원가족의 건강성이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그리고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고등학생의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그리고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

고등학생들의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그리고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을 살펴 본 결과

표 2. 고등학생들의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결혼·가족관       | 334 | 3.92 | .81  |
| 결혼관          |     | 3.45 | 1.21 |
| 가족관          |     | 4.16 | .79  |
| 이혼관          | 334 | 3.61 | .64  |
| 행복한 가족형성 자신감 | 334 | 2.89 | 1.82 |

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의 결혼·가족관 점수는 평균 3.92로 이혼관이나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관의 평균점수(3.45점)가 가족관(4.16점) 점수 보다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고등학생들은 가족을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만, 반면에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관의 경우에는 평균 3.61점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반면에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은 평균 2.89점으로 결혼·가족관이나 이혼관과 비교해 상당히 낮았다.

####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결혼·가족관, 이혼관, 자신감과 의 관계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을 살펴본 결과가 표 3, 표 4, 표 5에 기재되어 있다.

먼저 결혼·가족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외에 아버지의 직업이 유의도 수준 .05에서 고등학생의 결혼·가족관에 영향을 주었다. 이를 다시 사후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인 학생과 전문직인 학생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결혼·가족관

(N=334)

| 구 분           |            | 사례수 | 평균   | t / F값  | Scheffe            |
|---------------|------------|-----|------|---------|--------------------|
| 성 별           | 남학생        | 108 | 4.25 | 5.37*** |                    |
|               | 여학생        | 226 | 3.76 |         |                    |
| 종 교           | 기독교        | 100 | 3.90 | .94(ns) |                    |
|               | 천주교        | 53  | 4.03 |         |                    |
|               | 불교         | 31  | 4.08 |         |                    |
|               | 무교         | 46  | 3.87 |         |                    |
| 지각한<br>가정경제수준 | 상          | 19  | 3.77 | .77(ns) |                    |
|               | 중          | 301 | 3.99 |         |                    |
|               | 하          | 14  | 3.74 |         |                    |
| 아버지 직업        | 노동/자영/서비스직 | 152 | 3.95 | 3.80*   | 사무직*전문직<br>(p<.05) |
|               | 사무직        | 105 | 4.04 |         |                    |
|               | 전문직        | 63  | 3.63 |         |                    |
|               | 무직         | 14  | 4.07 |         |                    |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이혼관

(N=334)

| 구 분           |            | 사례수 | 평균   | t / F값   | Scheffe |
|---------------|------------|-----|------|----------|---------|
| 성 별           | 남학생        | 108 | 3.44 | -3.45**  |         |
|               | 여학생        | 226 | 3.70 |          |         |
| 종 교           | 기독교        | 100 | 3.64 | .18(ns)  |         |
|               | 천주교        | 53  | 3.57 |          |         |
|               | 불교         | 31  | 3.63 |          |         |
|               | 무교         | 46  | 3.61 |          |         |
| 지각한<br>가족경제수준 | 상          | 19  | 3.61 | .02(ns)  |         |
|               | 중          | 301 | 3.61 |          |         |
|               | 하          | 14  | 3.64 |          |         |
| 아버지 직업        | 노동/자영/서비스직 | 152 | 3.57 | 1.07(ns) |         |
|               | 사무직        | 105 | 3.61 |          |         |
|               | 전문직        | 63  | 3.66 |          |         |
|               | 무직         | 14  | 3.86 |          |         |

직인 학생들이 아버지가 전문직 직업을 가진 학생들 보다 결혼과 가족을 다른 가치들 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결혼과 가족에 대해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이혼관을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징 중 성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이혼에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성별 외에 다른 변인은 고등학생들의 이혼관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종교나 아버지의 직업, 자녀가 지각한 가족경제 수준 등과 같은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보다 성별이 고등학생의 결혼·가족관과 이혼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에는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등학생들의 행복

한 가족형성 자신감은 결혼·가족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고, 성별이나 부모의 직업, 가족의 경제수준, 종교에 따른 차이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여학생의 가족형성자신감 점수가 남학생 보다 낮았다(표 5).

#### 청소년이 지각한 근원가족의 건강성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근원가족의 건강성 수준은 표 6에 제시되었다. 근원가족의 건강성 평균 점수는 3.52점으로,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근원가족에 대해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지각하였다. 근원가족 건강성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문제해결수행능력이 3.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치체계공유는 3.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앞서의 행복한 가족형성 자신감과 근원가족 건강성 점수를 비교할 때, 고등학생은 자신의 근원가족 건강성(3.52점)은 비교적 높게 지각하는

표 5.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행복한 가족형성자신감

(N=334)

| 구 분           |            | 사례수 | 평균   | t / F값  | Scheffe |
|---------------|------------|-----|------|---------|---------|
| 성 별           | 남학생        | 108 | 3.23 | .78(ns) |         |
|               | 여학생        | 226 | 2.72 |         |         |
| 종 교           | 기독교        | 100 | 2.90 | .18(ns) |         |
|               | 천주교        | 53  | 2.85 |         |         |
|               | 불교         | 31  | 3.00 |         |         |
|               | 무교         | 46  | 2.87 |         |         |
| 지각한<br>가족경제수준 | 상          | 19  | 3.05 | .24(ns) |         |
|               | 중          | 301 | 2.86 |         |         |
|               | 하          | 14  | 3.14 |         |         |
| 아버지 직업        | 노동/자영/서비스직 | 152 | 2.94 | .77(ns) |         |
|               | 사무직        | 105 | 3.00 |         |         |
|               | 전문직        | 63  | 2.59 |         |         |
|               | 무직         | 14  | 2.79 |         |         |

표 6. 청소년이 지각한 근원가족 건강성 (N=334)

| 변 수      | 평균   | 표준편차 |
|----------|------|------|
| 근원가족 건강성 | 3.52 | 0.63 |
| 가족의 유대감  | 3.62 | 0.70 |
| 가족의 의사소통 | 3.50 | 0.67 |
| 문제해결수행능력 | 3.68 | 0.67 |
| 가치체계 공유  | 3.29 | 0.67 |

반면에, 자신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 형성할 가족에 대한 자신감(2.89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사회인구학적인 특징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근원가족건강성과의 관계

고등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고등학생이 지각한 근원가족건강성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연구문제 1에서 살펴본 결혼·가족관과는 달리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적, 가족경제수준, 아버지의 직업 등에서도 차이가 없었으며, 단지 종교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이를 다시 집단 간 사례수가 달라도 검증이 가

표 7. 종교에 따른 근원가족 건강성

(N=334)

|     | 사례수 | 평 균    | F값      | Scheffe  |
|-----|-----|--------|---------|----------|
| 기독교 | 100 | 118.82 | 5.49*** | 기독교*불교   |
| 천주교 | 53  | 122.83 |         | (p<.05)  |
| 불교  | 31  | 131.84 |         | 불교*무교    |
| 무교  | 150 | 115.88 |         | (p<0.01) |

표 8.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그리고 자신감에 대한 설명력

(N=334)

| 모 형                 |           | B     | $\beta$ | R   | F        | R <sup>2</sup> | R <sup>*</sup> |
|---------------------|-----------|-------|---------|-----|----------|----------------|----------------|
| 고등학생의<br>결혼·가족관     | (상수)      | 17.60 |         |     |          |                |                |
|                     | 근원가족의 건강성 | 4.53  | .34     | .34 | 43.13*** | .12            | .11            |
| 이혼관                 | (상수)      | 7.50  |         |     |          |                |                |
|                     | 근원가족의 건강성 | -2.27 | -.04    | .09 | .49(ns)  | -.01           | -.01           |
| 행복한 가족형성에<br>대한 자신감 | (상수)      | 2.19  |         |     |          |                |                |
|                     | 근원가족의 건강성 | 1.55  | .35     | .35 | 46.30*** | .12            | .12            |

능한 Scheffe로 사후분석 한 결과, 기독교와 불교, 불교와 무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이 지각한 근원가족의 건강성은 종교가 없는 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종교에서도 불교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근원가족의 건강성과 결혼·가족관, 이혼관, 그리고 자신감과의 관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근원가족의 건강성이 자신의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그리고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 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근원가족의 건강성은 자신의 결혼·가족관과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에 각기 11%와 1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혼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건강가족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모인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청소년 건강가족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87.3%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건강가족 프로그램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12.7%)들의 경우에는 매스컴이나 교회, 성당, YMCA와 같은 종교기관과 사회기관을 통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언제 들어보았는가를 질문하였을 때, 1년 이내에 들어본 적이 있다는 부모가 78%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 프로그램의 필요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의 91.1%가 「필요하다」, 8.9%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대부분의 부모들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청소년 건강가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모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부모 모두에게 그 이유를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이들이 왜곡된 가족과 결혼문화에만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모델을 본보기로 하여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접해야 사고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등과 같이 자녀에게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가족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에 청소년 건강가족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부모들은 “지금도 화목한 가정을

할 수 있으므로”, “가정교육으로 충분하다”, “아이에게 잘 지도하고 있다” 등과 같이 우리 가족은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 “오히려 아는 것이 더 안 좋다” 등과 같은 대답도 일부 있었다.

### 프로그램의 실시방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 프로그램의 실시시기와 기간, 지도교사 등에 대한 부모의 의견은 표 9에 제시되었다.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이 많은 부모들이 방학보다는 학기 내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은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대입 시험 준비로 방학을 보내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은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에도 영향을 미쳐, 실시기간이 짧을수록 부모들은 더 선호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학교의 교원 보다는 발달과 가족학 전문가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응답하였다.

### 프로그램 내용

부모들이 원하는 청소년 건강가족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10과 같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 프로그램 내용에 고등학생 부모들이 원하는 가장 원하는 내용은 「건강한 사랑-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89.0%)였으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이성교제」(86.1%)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84.4%), 「자신의 잘못된 소비생활 점검하기」(83.1%) 등의 항목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드라마와 영화 속에 나오는 낭만적 사랑의 문제」(31.6%), 「자신의 삶 돌아보기」(43.4%), 「이성교제 시 남녀 차이 이해하기」(44.7%) 내용과 성교육의 일환인 「출산과정과 오늘날의 다양한 출산방법들」(46.8%), 그리고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조교제」(49.4%), 「고정 관념적 성역할에 따른 문제들」(51.1%)과 같은 내용에는 상대적으로 부모의 선호도가 낮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성교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잘못된 소비생활 점검 등의 항목에 부모들이 높게 응답함으로써, 청소년 자녀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이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지향하며», 「재혼가족에 대해 열린 마음 갖기」의

표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프로그램 실시방법

(N=237)

| 실시 시기      | 빈도(%)     | 실시 기간  | 빈도(%)    | 담당자       | 빈도(%)     |
|------------|-----------|--------|----------|-----------|-----------|
| 여름방학       | 40(16.9)  | 5회 이내  | 93(39.2) | 담임 교사     | 12(5.1)   |
| 겨울방학       | 28(11.8)  | 6-9회   | 64(27.0) | 가정기술과목교사  | 29(12.2)  |
| 학기내 - 방과후  | 5(2.1)    | 10-15회 | 52(21.9) | 발달가족학 전문가 | 190(80.2) |
| 학기내 - 특활시간 | 105(44.3) | 16-20회 | 16(6.8)  | 기 타       | 6(2.5)    |
| 학기내 - 수업시간 | 31(13.1)  | 기 타    | 12(5.1)  |           |           |
| 대입시험 이후    | 25(10.5)  |        |          |           |           |
| 기 타        | 3(1.3)    |        |          |           |           |

표 1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 프로그램 내용

(N=237)

| 청소년 건강가족 프로그램 내용       | 빈 도 | 퍼센트  |
|------------------------|-----|------|
| 건강가족의 공통적인 특징          | 132 | 55.7 |
| 우리가족의 건강도              | 151 | 63.7 |
| 건강가족에 대한 소망찾기          | 119 | 50.2 |
|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 200 | 84.4 |
| 자신의 삶 돌아보기             | 103 | 43.5 |
| 고정관념적 성역할에 따른 문제들      | 121 | 51.1 |
| 양성성이란                  | 136 | 57.4 |
| 드라마·영화에 나오는 낭만적 사랑의 문제 | 75  | 31.6 |
| 건강한 사랑·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   | 211 | 89.0 |
| 이성교제 시 나타나는 문제들과 그 해결책 | 131 | 55.3 |
| 이성교제 시 남녀의 차이 이해하기     | 106 | 44.7 |
| 건전하고 책임있는 이성교제         | 204 | 86.1 |
| 우리나라의 잘못된 결혼문화         | 119 | 50.2 |
| 나의 건강한 결혼식을 꿈꾸며        | 124 | 52.3 |
| 결혼식 보다는 결혼생활에 투자하기     | 157 | 66.2 |
| 이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지향하며    | 133 | 56.1 |
| 재혼가족에 대한 열린 마음 갖기      | 135 | 57.0 |
|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해          | 140 | 59.1 |
|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해          | 132 | 55.7 |
| 부모님과의 세대차이 극복하기        | 171 | 72.2 |
| 개방적인 의사소통              | 142 | 59.9 |
| 나도 신용불량자가 될수 있다        | 123 | 51.9 |
| 자신의 잘못된 소비생활 점검하기      | 197 | 83.1 |
| 건강한 식생활                | 153 | 64.6 |
| 낙태와 미혼모                | 166 | 70.0 |
| 왕따                     | 138 | 58.2 |
| 원조교제                   | 117 | 49.4 |
| 임신에 따른 산모와 태아발달        | 144 | 60.8 |
| 출산과정과 오늘날의 다양한 출산방법    | 111 | 46.8 |
| 영유아발달에 대한 이해           | 129 | 54.4 |

항목에는 56.1%, 57.0%가 건강가족 프로그램 내용으로 선택함으로써,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이혼과 재혼가족에 대해 과거 무조건적인 부정적 태도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필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고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요구도 조사를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이 느끼는 전반적인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그리고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을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 보았다. 아울러 요즈음 청소년이 지각한 근원가족의 건강성이 어떤 수준이며, 청소년의 결혼·가족관과 이혼관, 그리고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건강가족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은 가족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만, 상대적으로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으로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 자신은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정체성과 가치관은 이후의 발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형성된 결혼과 가족 가치관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후 청년기의 이성 관계와 결혼관에도 지속적으로 전이되어진다는 인식하에,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결혼·가족관과 이혼관의 차이가 심각하였다. 남학생의 결혼·가족관의 점수는 여학생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

냈으며(남 4.25, 여 3.76,  $d=.49$ ), 특히 결혼관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났다(남 4.02, 여 3.18,  $d=.84$ ).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가족형성 자신감의 경우 남학생은 평균 3.23점인 반면에 여학생은 2.72점을 나타냄으로서, .51점 정도의 점수 차가 발생하였다.

즉 여학생들의 결혼·가족관과 가족형성 자신감이 남학생 보다 낮게 나타나고, 이러한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혼·가족관과 이혼관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이미 여러 연구(김성희, 2003; 옥선화, 1989; 유계숙, 유영주, 2002; 이재경, 2000)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남학생들의 결혼·가족관은 여학생과 비교하여 보수적이고, 여학생은 너무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내용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여학생들의 지나치게 진보적이며 개방적인 결혼·가족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지 못한 채 부모님 세대의 결혼·가족관에 머물러 있는 남학생들의 보수적 가치관에 따른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성별 외에 아버지의 직업이 고등학생의 결혼·가족관에 영향을 주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인 학생들의 결혼·가족관점수가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학생들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다. 반면에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학생들이 노동/자영/서비스직이나 사무직의 직장을 가진 아버지를 둔 학생들 보다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에 소극적이며, 가족에 대해서도 비교적 낮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추후 연구에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전문직 직업을 가진 중상

류층에서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가족 관련 프로그램은 사회 복지와 보상교육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가족의 자녀만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계층을 고려하면서도, 각각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근원가족의 건강성 평균점수는 3.52점으로, 이는 고등학교 2학년층을 대상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살펴본 윤세은(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점수(3.35)보다 조금 높았다. 즉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근원가족에 대해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이 지각한 근원가족의 건강성은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에 1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앞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행복한 가족형성 자신감에 어떤 통계적 유의성도 나타내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의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은 부모의 직업이나 가족의 경제수준과 같은 물리적 요인이 아닌 가족 내에서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원가족의 건강성은 가족의 유대감과 의사소통, 문제해결수행능력, 가치체계의 공유 등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가족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가치관을 공유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깊이 있는 대화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가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필요성과 욕구를 살펴보았다. 질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부모들(91.1%)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필요 이유로는

“아이들이 왜곡된 가족과 결혼문화에만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모델을 본보기로 하여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접해야 사고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등과 같이 자녀에게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가족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프로그램의 실시 방법으로는 부모들의 경우 방학보다는 학기 내에, 그리고 장기간 보다는 단기간 동안의 실시를 더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은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대입 시험 준비로 방학을 보내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학교의 교원 보다는 발달과 가족학 전문가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응답하였다.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건강한 사랑-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89%)였으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이성교제」(86.1%)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84.4%), 「자신의 잘못된 소비생활 점검하기」(83.1%) 등의 항목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드라마와 영화 속에 나오는 낭만적 사랑의 문제」(31.6%), 「자신의 삶 돌아보기」(43.4%), 「이성교제 시 남녀 차이 이해하기」(44.7%) 내용과 그리고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조교제」(49.4%), 성교육의 일환인 「출산과정과 오늘날의 다양한 출산방법들」과 같은 내용에는 상대적으로 부모의 선호도가 낮았다. 이와 같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반면에 「원조교제」와 같은 반사회적 내용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정보 제공을 통한 학습효과를 우려하여 부모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조교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일부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의 모방심리와 호기심으로 인하여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은 성교육 내용의 일부인 「임신에 따른 산모와 태아발달」 항목에는 60.8%가 선택하였으나, 이와 달리 「출산과정과 오늘날의 다양한 분만방법」 내용에는 46.8%만이 응답하였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출산과 분만 과정에 폐쇄적이며, 출산과 분만 내용을 고등학생에게 제시하는 것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이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지향하며」, 「재혼가족에 대해 열린 마음 갖기」의 항목에도 건강가족 프로그램 내용으로 과반수가 선택함으로서,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이혼과 재혼가족에 대해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필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할 때, 수도권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는데 제한점이 있다. 실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 학생들과 부모가 제외되어 청소년 건강가족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적인 문제 외에 추후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종교, 지각한 가족경제수준, 아버지의 직업)과 고등학생의 결혼·가족관, 이혼관, 그리고 가족형성 자신감 및 근원가족의 건강성과의 관계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가족관에는 성별과 아버지의 직업이, 그리고 이혼관에는 성별만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으며, 반면에 근원가족 건강성에는 종교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대학생의 결혼관을 살펴본 양명숙(1996)의 연구에서는 출

생순위와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족의 형태(확대가족, 핵가족)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결혼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 뿐만 아니라 모의 직업과 학력, 가족의 형태 등과 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이혼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들의 의식과 함께, 지각된 이혼이 미친 영향력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등학생의 결혼관은 가족관에 비해 점수가 낮았으며, 무엇보다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낮게 나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인지, 10%인지에 대한 수치 자체 보다는 청소년과 부모들이 얼마나 이혼을 직접적으로 지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각된 이혼율이 결혼과 가족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적절한 프로그램의 목적과 요구도에 관한 부분이다. 여러 가족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 성격의 프로그램들은 그동안 외국의 프로그램을 기초로 내용을 일부만 수정한 채 실시되어졌던 일부 프로그램을 비판하면서 대상자의 요구도 분석을 재차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주 대상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욕구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학습자의 요구도 분석 자체가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Powell과 Cassidy(2001)가 주장하였듯이,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각된 욕구와 더불어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는 교육자와 전문가의 욕구, 그리고 미래의 필요에 의한 욕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건강가족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준비단계로 미래의 필요에 의한 욕구 분석을 위해 건강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 부모의 필요성과 요구도를 살펴 보았다. 청소년의 부모는 부모역할에 대한 청소년들의 모델이며, 아울러 청소년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자와 전문가들의 요구도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나타났듯이, 가족을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도, 행복한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이 고등학생 즉 청소년기에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은 오늘날 점차 늦어지는 성인들의 결혼연령과 결혼기피현상이 청소년기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정체성과 가치관은 이후의 발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개발된 건강가족 프로그램이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결혼한 부부, 성인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성인이 아닌 청소년 집단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어왔다. 부부관계를 다룬 프로그램들의 교육효과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부부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인 미혼시기의 교육이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 효과를 나타내었음을 발견한 Gallagher(2002)의 주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고등학생의 결혼·가족에 대한 태도와 부모의 건강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청소년 건강가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에 이미 형성되어진 낮은 가족에 대한 자신감과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결혼·가족관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가족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재 강조함으로 이 연구에 대한 제언을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선주·이현아·이기영·최진아·유우영 (2003). 가족 및 관리의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41(6), 1-15.
- 김남숙 (1993).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희 (2003). 청년 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75-85.
- 김영옥 (1999). 우리나라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25-42.
- 김용미·서선희·옥경희·정혜정 (2002). 결혼과 가족의 의미. 서울: 양서원.
- 김혜석 (1990). 결혼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남순현 (2001).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4). 2004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신혜영 (1997).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명숙 (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 어은주·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

- 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 \_\_\_\_\_ (1997).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69-285.
- 오윤자 (1994). 가족생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육선화 (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계숙 · 유영주 (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5), 79-94.
- 유안진 (1994). 건강한 가족과 건강한 아동. 아동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유영주 (1991). 건전가족 육성을 위한 가정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가정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3.
- \_\_\_\_\_ (1994). 건강가족의 특성과 가족원의 역할. 아동학회지,
- 유영주 · 이정연 · 오윤자 (1998).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 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 이론 및 프로그램.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유은희 · 박성연 (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 윤세은 (2001).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유영주.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 이승신 · 조인경 · 김혜경 · 백영균 · 최광현 · 민창기 · 이원이 (2001).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 서울: 천재교육.
- 이영호 · 최보아 · 서미란 · 지영숙 (2004).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민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7.
- 이재경 (2000). 성별화된 이혼과 여성. 가족과 문화, 12(2), 81-98.
- 이창숙 (1998). 부부갈등해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수 (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춘애 · 박성연 (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33.
- 정민자 (1996).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373-391
- 정성봉 · 이상봉 · 이종성 · 이창종 · 이해자 · 나현주 · 모태화 · 천혜정 (2001).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서울: 교학사.
- 정현숙 (2004). 결혼 전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_\_\_\_\_ (1997). 부부관계 프로그램: 일·사랑·가족 함께 하기. 한국가족관계학회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 제경숙 (1989). 고등학생을 위한 부모역할 교육의 교과과정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주소희 (1991). 이혼가정 자녀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옥분 · 황현주 · 엄세진 (2004). 청소년 건강가족 프로그램. 2004 한국학술진흥재단 Future Korea 사업신청서, 미간행.
- 지영숙 · 이영호 (1998). 한국가정의 건전도 측정

- 을 위한 척도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233-249.
- 최혜경 · 노치영 · 박의순 (1994). 결혼 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 최희진 · 유영주 (1999). ‘가족기능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Tavitian, Lubiner, Green, Grebstein, Velicer의 가족기능척도에 기초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57-71.
- 통계청 (2004). “2003년 혼인, 이혼 통계 결과”
- 한성현 · 최민자 · 이진석 (2000). 우리나라 여성 이혼율의 최근 변화추세-인구동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5(1), 1-10.
- 홍달아기 · 신현실 (2001). 교과과정으로서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W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14(2), 29-47.
- 매일신문 2004. 7. 12
- Arcus, M., Schvaneveldt, J., & Moss, J. (1993). The nature of family life education. In M. Moss, J. Schvaneveldt & J. Moss (Eds.).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 Newbery Park, CA: Sage.
- Barnhil, L. R. (1979). Healthy family system. *Family Coordinator*, 28, 94-100.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63-672.
- Bloom, B. L. (1985). A factor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4, 225-239.
- Chase-Lansdale, P. L., Cherlin, A. J., & Kiernan, K. E. (1995). The long 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the mental health of young adult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5, 1614-1634.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Fernandez, E. (1997). The grim legacy of divorce. *The Atlanta constitution*, 3, 5-15.
- Fine, M. (1988). The relationships of perceived health on family of origin to levels of state and trait anxiety. *Family Therapy*, 15, 51-57.
- Gallagher, M. (2002). “Marriage and Public Policy: What Can Government Do?”. Policy Brief.
- Hetherington, E. M.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 Hetherington, E. M., Bridges, M., & Insabella, G. M. (1998). What's matters? What does not? Five perspectiv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transitions and children's 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67-184.
- Hudson, W. W., Acklin, J. D., & Sartosh, J. C. (1980). Assessing discord in family relationships,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1-29.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duc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London: W. W. Norton & Company.
- Olson, D., & DeFrain, J. (1994).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Otto, H. A. (1962). What is a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1.
- Powell, L., & Cassidy, D. (2001). Family life education. Mountain View, CA: Mayfield Publishing Co.
- Stinnett, N., & Defrain J. (1985). *Secrets of Strong Family*. Boston: Little Brown.

# A Basic Study for Developing the Strong Family Program for Adolescents

Hyunjoo Hwa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needs about strong family program for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lues of marriage and family, attitude toward divorce, pride about healthy family formation, and perceived health in family-of-origin were investigated.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334 high school students and 237 their parents who resided in metropolitan area. Statistical methods for the data analysis were t-test, ANOVA, and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high school students think family as the important value in their life. But students are negative in family formation through marriage.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he values of marriage and family, and attitude toward divorce. 3) The pride about healthy family formation was lower than the others. 4) Perceived health in family-of-origin was relatively good. 5) Perceived health in family-of-origin makes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 to pride about happy family formation. 5) Most parents were feeling necessity of strong family program for adolescents.

*Keywords : strong family program for adolescents, values of marriage and family, attitude toward divorce, pride about healthy family formation, perceived health in family-of-origin, need of parent for strong family program*